

이야기 마을에서 빚은 질박한 술의 향

- 담촌 서대석 선생님의 학문과 인생 -

대담자: 서대석, 심우장

(2009년 6월 18일, 도곡동 음식점 '우각')

대답에 앞서

서대석 선생님의 아호는 '담촌(譚村)'이다. 평생 구비서사문학을 중심에 두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무척 잘 어울리는 아호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몇 시간이고 혼자서 이야기판을 주도하시는 선생님의 탁월한 입담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호의 출처를 당연 이곳에서 찾는다. 선생님을 뵙기 위해 발길을 옮기면서도 대담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일단 화두만 몇 가지 던져두면 선생님께서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빚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뵙는 장소가 이야기의 흥을 돋우는 약주까지 곁들일 수 있는 곳이라면…….

학부시절 이야기

심우장: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강의와 집필 등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뒷받침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꽤 오랫동안 등산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등산을 하시는지요?

서대석: 그럼요. 매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주로 청계산을 가는데,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해서 주로 일요일에 올라가요.

심우장: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시절에는 태권도부로 전국체육대회 서울지역 예선 준우승까지 하셨다고요. 태권도부의 서 선생님, 유도부의 송기중 선생님에 대한 대학시절 에피소드가 회자되기도 합니다. 우선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서대석: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1961년은 4·19 혁명이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이어서 대학생의 위상이 한껏 높아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전차를 타면 노인들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큰 일 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하니 여기 앉으라’고 할 정도였지요. 고향 시골마을에서도 대학생이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대학생을 둔 집에서는 부모가 은근히 뽐내기도 하고 어른들이 잔치 자리에서 술 먹고 시비가 일어났을 때도 대학생을 불러서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은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평소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말씀대로 ‘남에게 압제를 받지 않고 비켜서지 않고 당당히 살려면 글을 알아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좀 하는 편이니 대학은 웅당 가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젊은 놈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끌리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도 세고 말도 잘해야 하는데, 말은 좀 하는 편이지만 키도 작고 힘은 센 편이 아니어서 격투기를 한 가지 배워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이 태권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도관을 다녔는데 한 반 년 다니다가 심사를 한번 보고 2학년이 되니 친구들이 모두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진학 공부만 하는 분위기여서 나도 도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문리대를 입학하니 계시관에 태권도부 부원모집 광고가 붙어 있길래 교내에도 도장이 있구나 하고 반가워서 서울대학교 권우회에 입회원서를 쓰고 운동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권우회에 들어가서 청도관 7급이라고 하니 선배들이 무척 반가

위했어요. 그 당시 태권도는 청도관, 지도관, 무덕관, 한무관 등 여러 도장에서 각기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서울대 태권도부는 청도관 계통이어서 이미 배웠던 기본자세나 형(품새)들이 모두 인정되었고 청도관 본관 사범들이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동급생 신입부원 중에서 선임자 구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각 대학 태권도부가 연합하여 태권도 학생연맹을 결성하여 서로 무예수련을 교류하고 우의를 다졌습니다. 학교 축제가 열리면 연무대회를 개최하는데 타 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시범을 보이고 식사도 같이하곤 했습니다. 나도 초단을 따고는 다른 대학 연무대회에 찬조출연으로 나다니면서 격파도 하고 대련도 했어요. 내가 잘하는 시범 종목은 기와 열장 놓고 정권 격파하는 것과 고축(高蹴)격파였습니다.

3학년 때, 전국체육대회 대표선발을 겸해서 서울시 체육대회에 대학생부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태권도부가 출전을 하여 준우승을 하였는데 사실은 출전한 팀이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단 2팀뿐이었습니다. 준우승도 상품이 있어서 상을 받고 기념사진도 찍고 술을 먹고 호기를 부리던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태권도를 한 덕분에 학생회 일을 도운 일도 기억납니다. 1964년 4학년 때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창경원 그룹미팅을 할 때 정문 기도를 본 것입니다. 유도부, 역도부, 태권도부, 검도부 등 운동부 유단자들이 모두 진행을 맡아 질서를 잡아달라는 학생회 측 부탁을 받고 노란 꼬리표를 가슴에 달고 정문에서 표검사를 하여 입장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다보니 파트너를 못 찾아 아우성이 났어요. 남녀학생들에게 4자리 숫자가 찍힌 티켓을 발매하고 파티하는 날 창경원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내 파트너를 삼기로 한 것인데 학생들이 몇 천 명 몰려들어 아우성을 치자 같은 번호를 찾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페켓에 번호를 써서 들고 혜매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다가 결국 파트너를 못 찾은 사람들이 진행요원에게 몰려와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내가 나서서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했지요. 학훈단 훈련에서 배운 것을 응용하여 남자와 여자를 키대로 두 줄로 세우고 번호를 붙인 후 좌우향우를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여

파트너를 정해주었습니다. 기대에 안 찬 학생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였지만 ‘같은 번호가 천생연분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무얼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너스레를 떨어서 모두 행사장 안으로 몰아넣고 정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타 대학에서 쳐들어온다고 소문이 돌아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말썽부리는 사람이 없어 할일이 없어졌습니다. 진행요원은 다른 날 따로 파티를 해준다고 약속하였기에 파트너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함께 진행을 맡아보던 친구와 같이 명성 소주를 사서 병째로 마시고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유도부의 송기중형도 어느 한 곳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K대다!’ 하고 소리를 치고 달려드니, ‘어떤 놈이냐!’하고 소리를 치고 내닫다가 마주보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원 시절, 그리고 스승과의 인연

심우장: 비교적 일찍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미리 해 놓고 장교로 군 입대를 하시고 67년에 복학하여 석사과정을 밟으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셨는지요? 또 그 과정이나 대학원 시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대석: 나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시험을 치다가 떨어져서 일 년간 재수를 하면서 한문 서당을 다녔어요. 서당에서 小學과 大學을 읽었는데 다른 동접들이 千字文, 啓蒙篇, 通鑑, 明心寶鑑, 孟子 등을 읽고 있어서 이러한 책의 내용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해 휘문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한문과목은 특별히 성적이 좋았고 국어도 고문을 배우면서 재미도 있고 성적도 좋았어요. 국어 이외에는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은 골치가 좀 아픈 편이어서 재미난 공부를 해보려고 국문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들어가서 성기열 선생님 지도로 신문도 만들고 교지도 편집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때 심약 이승녕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학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전문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문리대 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분야 전임교수는 백영 정병욱 선생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고전문학강독」 한 강좌만 하시고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시어 4학년 때 돌아오셔서 「여요론」을 강의하셨으니까 이 두 강좌를 제외하고는 주로 성산 장덕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산 선생은 그 당시 연세대에서 4·19 이후 학내 민주화 투쟁을 하시다가 재단과 마찰을 빚고 파면을 당하여 강사로 문리대에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대우 부교수를 거쳐 3학년 때 문리대 전임교수가 되셨습니다. 1학년 1학기에 「국문학개론」을 시작으로 2학기에 「교양국어」, 2학년 때 「고전소설강독」, 3학년 때 「고대소설론」, 「설화문학론」, 4학년 때 「고전문학연습」까지 고전문학분야 강의를 주로 성산 선생께 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전문학의 세부 전공분야는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백영 선생이 시가전공이고 성산 선생이 산문전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비문학은 아직 전공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성산 선생이 개척하고 있던 분야였죠. 성산 선생이 학부 졸업논문을 보시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히 성산 선생의 문하가 되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조희웅 형이 학부 때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성산 선생의 첫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무급조교와 강사 시절 이야기

심우장: 학과 무급 조교를 하셨고 이화여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하셨는데요, 당시는 요즘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혹 재미 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서대석: 1967년 4월 군에서 제대를 하고 대학원에 복학했는데 마침 성산 선생이 학과 주임교수 일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학과 조교자리가 비었으니 조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학과에는 유급조교는 없고 무

급조교가 둘이 있었는데 어학전공 1명, 문학전공 1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학전공 조교는 이병근 형이 하고 계셨는데 2년 먼저 학훈 1기로 전역하여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병근 형은 자상하고 친절하게 조교 업무를 잘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연구실 청소부터 하고 선생님들 도장을 가지고 교수회의실에 가서 출강부에 도장을 찍고 우편물을 찾아와서 선생님 연구실로 전달하고 전화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선생님 연구실에는 전화가 없었고 합동연구실(학과 사무실)에 만 전화가 있어서 전화할 일이 있는 선생님은 합동연구실에 와서 교환에게 전화번호를 신청하고 기다렸다가 전화가 연결되면 통화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찾는 전화도 모두 합동연구실로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선생님 연구실로 달려가서 선생님께 전화를 받으시라고 알려야 했습니다.

돈도 받지 못하고 전화 심부름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조교는 실로 막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항상 전화기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학과의 모든 연락은 조교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졸업생들 취직문제부터 강사 위촉이나 잡지사 원고 청탁, 심지어 술집 의상값까지 선생님들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교 생활을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았고 교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선생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교수는 진정한 자유인이었고 명망 높은 탈속한 존재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전임 선생님들을 ‘신선’이라고 하고 그 방을 지키는 학생을 ‘동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교는 학술답사를 가면 그 역할이 돋보입니다. 답사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타내 분배하고 학생들에게 조사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조사팀의 선봉에서 팀원을 이끄니까 답사할 때는 항상 신바람이 났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특히 술을 답사란 명분을 내걸고 공금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3년간 무급조교를 마치고 1970년 1학기부터 이상택 선생의 주선으로 이화여대 교양국어 강의를 8시간 얻어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1시간

1학점짜리 실용문(교양작문)을 8개 학급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어서 첫 시간만 잘 넘어가면 일주일동안 강의 준비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학 동기생들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 강의를 맡는다’고 생각하여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도 몇이나 있었습니다.

스물여덟의 총각이 이화여대를 나가려니 아무리 점잖게 하고 교문을 지나 가도 수위가 꼭 붙들고 어디를 가느냐고 묻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위실을 지나가려면 머리 뒷꼭지가 간질간질하여 아주 스릴이 느껴졌습니다. 강의시간에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 학생들의 질문에 얼굴이 빨개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재미를 붙인 학생들이 더욱 괴롭혔지요. 무안하고 어색해서 몸 둘 바를 몰랐지만 실상은 즐거운 비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계명대, 이화여대 재직 시절 이야기

심우장: 71년 계명대에 부임하신 이후, 계명대에서 5년 남짓, 이화여대에서 8년 남짓 재직하셨는데요, 30대의 대부분을 이 두 학교에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이어서 학생들과의 교감도 무척 강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일화가 있으시면 좀 들려주십시오.

서대석: 계명대 전임이 되었을 때 나이가 만 28세였고 총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젊은 나이였죠. 대구가 낯선 곳이기는 해도 조동일 형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학과주임으로 계셨던 서재극 교수가 대구 서씨로 본이 같았고 다른 학과에도 최승희 교수 등 서울대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별로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계명대는 신생대학이라서 전 교수 가 5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정여 교수와 남기심 교수 등 대선배들이 많아서 막내로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전임이 되면 강의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나는 조동일 형이 자기 맡았던 과목을 내어주면서 강의 노트까지 모두 물려주었고 그 해 마침 『구비문학개설』이 출판되어 직접 저자로 참여한 교재를 썼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학생들과도 잘 어울려서 인기가

많았는데, 특히 공부가 시원치 않은 학생들이 참 많이 따랐어요. 그 당시는 유신정권시절이어서 학생들 시위가 매우 심할 땅니다.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인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은 서울대 조교시절 구비문학 현지조사를 하면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발휘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도 무척 열심히 하고 술과 함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며칠씩 숙식을 같이 하니 학생들이 모두 형이나 오빠처럼 여기고 허물없이 부닐었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75년 청도군 답사예요. 교수별로 답사반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자유로 지원을 하도록 했어요. 조동일 교수는 민속반, 서재극 교수는 방언반 그리고 나는 구비문학반(민요반, 설화반)을 맡았는데, 대체로 양전하고 착실한 학생들은 방언반이나 민속반으로 가고, 술도 좋아하고 학점도 좋지 않은 이른바 ‘니나노패’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거 구비문학반을 지망했지요. 그래서 니나노패 십여 명을 데리고 조사를 갔는데 마을에 가서 큰 술을 빌려다가 냇가 언덕에 걸고 쌀을 사고 나무를 주워다가 밥을 하고 국도 끓이고 해서 야유회 온 것처럼 식사를 해 먹고 저녁에 마을에서 노래 잘하는 분이나 이야기 잘하는 분을 만나 민요 녹음도 하고 설화 녹음도 하면서 청도군 일대를 3박 4일간 조사했습니다. 조사도 잘 돼서 특히 청도군 모심기노래를 많이 채록하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재미난 답사였지요. 마지막날에는 운문사로 집결하였는데, 다른 반들은 조사하느라고 지쳐서 기운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내가 이끄는 반은 여홍을 즐기느라 술을 몇 말을 시켜놓고 학년별 노래대항을 해서 상품으로 술 한 말씩을 주기로 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다른 반들이 우리 반 노는 것을 멀뚱히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불러서 술을 먹였더니 술취한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다가 조동일 선생에게 혼이 나서 나까지 머쓱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민요조사에 재미를 붙인 박종섭 선생은 그 후 거창군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민요 설화를 조사하여 자료집을 여러 권 출간하고 거창군 민요모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76년 2학기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길 때 학생들과 여러 차례 환송모임을 가진 것은 계명대 교수 중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76년 8월에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6년 전, 강사시절에 수위실에서 여학생들 쫓아다니는 남학생으로 잘못 알고 조사를 당했는데 이제는 전임교수가 되어 당당하게 출근하려니 격세지감이 있었습니다. 이대에는 이상택 선생이 끌어주셨는데 이상택 선생은 4년 선배로서 친형과 같이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조교시절부터 우리문화연구회에서 만나 학문도 토론하고 함께 고전문학회도 창립하였기에 동학이면서 동지였고 바둑과 술을 함께하는 지기가 통하는 선배였습니다. 또한 이남덕 교수, 김영덕 교수, 이어령 교수, 이해순 교수 등 서울대 대선배들이 계셨는데 역시 막내교수로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화여대에서는 탈춤반 지도교수를 맡았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당시도 군부독재시절이었으니까 학생시위가 심했는데 학생 써클 중에 가장 시위에 열심인 탈춤반을 맡아 지도하게 됐습니다. 구비문학 전공으로 전임이 됐으니 사양할 명분도 없어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5월이나 10월 축제행사에서 탈춤공연이 특히 인기가 있었는데, 꼭 다른 대학 탈춤반과 합세하여 시위가 벌어지곤 해서, 학교에서는 탈춤공연 날이 되면 비상이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도교수인 나는 매우 홍겨운 날이었어요. 관람석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지도교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아 구경하기가 좋고 공연이 끝나면 동태집이라는 막걸리 집으로 가서 뒤풀이를 하는데 술도 실컷 마시고 학생들과 어울려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사실 그 때 여학생들이 그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옛 가락 민요에서부터 유행가에 이르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합창으로 목이 터지게 불러대고 재담으로 가사를 바꿔 노래를 하면서 막걸리를 들이키는 것이 내 취향과 어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신변의 위태로움 같은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도교수와 학생사이에 별 불신의 장벽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0년 초 광주항쟁 당시 탈춤반 학생들이 투옥되어 지도교수를 그만 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서사무가 제석본풀이 연구’

심우장: 질문을 좀 바꿔서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화여대 재직 시 박사학위를 취득(1979)하셨는데요, 학위논문 제목이 ‘서사무가 제석본풀이 연구’입니다. 나중에 이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신 『한국무가의 연구』로 한국일보사에서 제정한 제21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1981)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당시를 생각해보면 구비문학에 대한 학적인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무가’를 대상으로 학위논문을 쓰신 것은 획기적인 일이면서도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서대석: 솔직하게 말하면 박사논문을 쓰느라고 큰 고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석사논문을 쓸 때부터 의식하고 있던 문제였는데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다가 동해안 무속조사를 하고 난 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논문 내용은 걱정이 없었는데 글 만드는 것이 조금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70년대 초에 박사학위 취득은 1975년까지로 구제박사학위 수여가 끝날 예정이어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수들이 그 안에 구제 박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구제박사학위를 신청하는 분들은 이미 논문과 저서를 가진 중견 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박사논문을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가장 자신 있는 주 전공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심사용 논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1976년 신제박사제도가 시작되면서 이미 발표한 논문과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박사논문을 쓰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서울대 국문학과의 경우, 1975년까지 문리대 전임교수들은 모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6년 신제박사 1호로 조동일 선생이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실 영웅소설은 그 당시 내가 군담소설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 전공으로 생각했었는데 조동일 선생이 논문을 쓰면서 접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사무가로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이지요. 조동일 선생 뒤로 김윤식 선생, 안병희 선생, 김용직 선생이 신제박사를 받았는데, 고전문학분야에서는 내가 두 번째로 197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석본풀이〉는 전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인데 서사무기는 무속신화이면서 서사시로서 매우 귀중한 우리민족문학 유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기 이전까지는 국문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박사학위논문에서 건국신화와 같은 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 뒤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논문은 〈제석본풀이〉 30여 각 편들을 비교하여 巫歌 圈을 구획하고 건국신화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여주인공 당금애기의 일생으로 정리되는 여성의 일생기라는 서사원형이 유화, 숙향, 춘향, 김수정, 이정임, 정초봉으로 굴절 전승되었음을 밝힌 것으로서 하나의 유형을 여러 시각에서 접근해 본 연구논문이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사실 지금 고구려 역사의 국적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고구려신화에 대해 한국의 소유권을 내세우려면 〈제석본풀이〉와 주몽신화가 같은 연원을 가진 한민족의 신화라는 사실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논문과 몇 편의 무가 논문을 합쳐 1980년 문학사상사에서 단행본을 냈는데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저작상을 받았습니다. 그 때 성산 선생이 심사 위원이셨는데 법대 최종고 교수와 같이 저작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기 때문에 상금은 반이었어요. 그런데 저작상 수상 저서로 이화여대에서 학술업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그 덕분에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었으니 상금 절반을 만화한 셈이지요.

서울대에 부임하여

심우장: 우스갯소리로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학번이 두 개라고 들었습니다. 61학번이면서 84학번이라고요. 84년 모교로 부임하신 감회라든지 혹은 부임하신 초창기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서대석: 84년 백영 선생 후임으로 서울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인사

위원회 결정은 83년 2학기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화여대 사정 때문에 한 학기 늦게 왔습니다. 84년에는 학과별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65명의 신입생이 입학을 하였고 그 이전에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 80여명이 2학년으로 진입하여 학과 학생수가 갑자기 불어난 해였습니다. 학과장은 정한모 선생님이셨는데 당시 학생들이 시위를 심하게 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지도에 비상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임교수로 학과장을 보좌하여 학부 학생 모임에 참가하곤 했는데 84학번 신입생들과 어울릴 때는 같은 해 서울대 국문과에 들어왔다고 해서 입사동기라 하기도 하고, 또 서울대에 오자마자 거창한 감투를 썼다며 ‘자칭 학생담당 학과장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서울대에 와서도 학생들과는 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은 아마도 답사기간 중에 여러 날을 함께 취했기 때문일 겁니다. 답사기간에는 숙식을 함께하고 학문과 인생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대화라기 보다 거의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를 나누었습니다. 서울대 시절의 추억으로는 역시 85년 1학기 공주군 답사가 기억납니다. 그해 마침 동기생인 오세영 교수가 새로 부임해 와서 함께 공주로 답사를 갔었는데 공주사범대학에 계시던 임현도 선생을 찾아뵈었습니다. 심재기 선생님과 조교로 있던 성범중 교수도 함께 있었는데 임현도 선생은 우리들을 교외 한적한 참외막으로 데리고 가서 가정에서 담근 약주술을 잔뜩 사주셨습니다. 또 후배들을 격려하신다면 마지막날 집결지인 갑사로 막걸리 몇 통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취하신 임 선생님이 인사말을 하려다 못하신 것이 생각나네요. 나도 물론 취해서 문지방에 걸쳐 누워 한 짹 발은 신발을 신은 채 잠이 들었지요. 임현도 선생은 백영 선생과 동기인 대선배인데 전공분야는 나와 같은 고전문학이었지만 만년에는 시를 쓰시면서 오세영 선생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서울대학교 국문과 선후배 사이에 나이를 잊은 진한 우의의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회 활동에 대하여

심우장: 고전문학 관련 여러 학회들이 창립 몇십 주년이라는 이름으로 기념 학술대회를 하면 꼭 선생님 성함이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한국고전문학회(1970), 판소리학회(1984), 한국구비문화학회(1993), 한국웃음문화학회(2005) 등 고전문학과 관련된 핵심 학회들을 연이어 창립하셨고,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5개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셨는데요, 학회 창립 과정에 얹힌 에피소드나 학문 활동에서 학회의 역할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대석: 내가 학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학부 때부터입니다. 학회를 가면 책에서 이름을 보았던 유명한 학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분들이 토론하는 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회에 가지 않은 친구들에게 학회에서 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초에 학회는 국어국문학회만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회 월례발표회가 있는 날이면 한 해 선배인 이해순 선생과 같이 구경삼아 찾아가곤 했지요.

그러다가 조동일 선생이 국문과에 편입한 뒤에 우리문화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칙작성이나 회원을 끌어들이고 운영하는 일은 조동일 형이 주로 하였는데 회장은 나를 세워놓고 송기중이 단장으로 있는 향토개척단에 소속을 시켜놓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군에 있는 동안 대학원생 중심으로 본격적 학회로 창립되어 『우리문화』라는 프린트본 학회지를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학회는 국문학, 국어학, 국사학, 철학, 사회학, 종교학, 국악 등 대학원생이나 갓 전임된 신예 소장학자들이 모여 한국학 전반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후 조동일 형이 계명대의 전임교수가 되어 대구로 가고 다른 분들도 하나 둘씩 교수가 되어가기도 하고 외국 유학을 떠나기도 하여 학회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 학문적 대화를 나눌 학회가 필요함을

느끼고 한국고전문학연구회(한국고전문학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를 따로 만들자는 말은 나와 임형택, 조희웅이 모인 술자리에서 나왔는데 내가 조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과 의논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먼저 이상택 선생께 이야기를 꺼내자 이상택 선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구회를 구상하고 김열규 선생을 찾아뵙고 함께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어요. 또 백영 선생을 찾아뵙고 고전문학 전공학회를 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반가워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 성산 선생, 나손 선생을 찾아뵙고 취지를 말씀드린 후 김열규 선생을 회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이상택 선생이 연구간사, 내가 총무간사를 맡아 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처음은 대체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들로 창립회원이 구성되었는데 서울대 이외에 소장학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참여한 분은 황페강, 인권환 등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달 월례연구발표회를 하였는데 이 때 난상토론을 벌려 발표자가 뭇매를 맞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고 이것이 학문문화로 자리를 잡아 그 후 수십 년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대구 계명대로 가서 학회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화여대로 온 뒤에 다시 참가하였고 서울대로 오면서 연구이사, 섭외이사를 거쳐 1995년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 재임시에 합천 해인사, 공군사관학교 등지에서 학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 부분은 그만하지요.

판소리학회는 84년 서울대로 오면서 강한영 선생님과 함께 창립한 학회입니다. 그 전에 백영 선생, 강한영 선생, 이보형 선생 등 몇 분이 동호회를 만들어 명창의 소리도 듣고 판소리 보급에도 힘을 썼는데 백영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본격적 학회를 결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전공, 국악 전공, 연극전공 등 판소리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아 학회를 만들고 회장에 강한영, 부회장에 허규, 이보형, 총무에 서대석, 연구에 김홍규, 이렇게 임원을 정하고 학술발표회와 학회지 간행 등 본격적 학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한영 선생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학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회원수도 증가했고 4년 후 허규 선생이 회장이 되고

이보형 선생과 내가 부회장이 되었을 때 학회지 『관소리연구』 창간호를 간행하여 학회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비문학회는 1990년경 서울대에서 내 지도로 구비문학을 전공한 박경신, 신동흔 등이 구비문학회를 결성하겠다고 제안을 하기에 나는 고전문학회 결성할 때 생각이 나서 ‘고문이 되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뒤로 물러앉을 생각이었는데 학회를 개방하여 전국적 학회로 육성하려면 아무래도 학회를 이끌 경력자가 필요할 듯하여 제자들의 권고로 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창립의 주역은 서울대 대학원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구비문학을 전공한 나의 제자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구비문학회도 창립초기 회원들의 열성이 대단하여 학술발표회를 자주 갖고 꾸준히 회원을 확장했습니다. 그리하여 학회창립 2년만인 1994년에 학회지 『구비문학연구』 창간호를 냈고 4년간 재임하면서 학회지 3호까지를 내고 조희웅 교수에게 회장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명실 공히 한국 구비문학분야를 대표하는 전국학회로 성장했습니다.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는 김대행 교수가 도와주어서 한 것인데 사실 옛날에 국어국문학회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학자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감투라고 생각했기에 대표이사가 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막상 운영을 해보니 힘만 들고 국어국문학분야 동학들의 관심이 퇴조하여 기대와는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학회는 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체입니다. 학문의 성과는 동학에게 알리고 서로 비판과 격려를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전합니다. 논어에 ‘思而不學則殆 學而不思則罔’라는 말이 있는데 思는 연구한다는 것이고 學은 남에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겨야 할 것은 혼자 하는 학문은 위태롭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는 대체로 한 대학에서 세부전공분야에 보통 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대학 내에서는 개별 교수의 학문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공분야 학자들의 모임인 학회를 통해서 평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예학자들은 학회를 통해 인정을 받고 성장합니다. 학회를 등한히 하는 교수는 사실 진정한 학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회활동은 학문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가 잘

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듯 학회가 잘 운영돼야 학문이 발전하고 홀륭한 학자들도 많이 배출된다고 봅니다.

연구업적에 대하여

심우장: 선생님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무가 및 신화 연구를 핵심으로, 군담소설을 비롯한 소설연구, 설화 및 재담과 소화 연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입론하신 내용 중, 특히 판소리의 서사무가 기원론, 한국서사문학의 여성수난 구조 등은 연구사적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시면서 이러한 연구를 하시게 된 배경이나 연구 과정 등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대석: 나는 고향인 경기도 양평의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 기억으로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은 조선조의 농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철이 되면 가래질을 시작으로 갈꺾이, 모심기, 논매기, 보리타작 그리고 가을에 벼를 베어 거둬들여 타작하는 농사 일이 반복되고 사랑방에서는 짚일이라고 하여 짚신 삼기, 지직 매기, 가마니 치기, 명석 만들기 등을 하였고 집안에서는 술 빚기,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조청 고기, 장 담그기 등과 길쌈하고 바느질하기 등 끊임없이 일 속에 묻혀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야기책을 보다가 자는 일이 많았는데 그 책이란 것이 대부분 고소설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농악패들이 풍물을 치며 일하러 다니는 모습도 보았고 논매기소리, 상여소리, 달구질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중학교 때 이미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유충열전, 조웅전, 이대봉전, 유문성전, 옥루몽 등을 두루 읽었어요. 그래서 국문과에 들어와서 고전문학자료나 구비문학자료를 보면 무척 친숙하게 느껴졌고 고전문학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생장한 학생들 보다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보다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일하는 즐거움인데 공부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구비문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사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은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써야한다고 하여 생각한 것이 선생님들이 별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무속사상이었습니다. 성산 선생께 의논을 드리니 좋다고 해보라고 하셔서 ‘국문학에 미친 무속의 영향’이란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고전문학 전반에 대해서 무속과 관련이 있는 자료는 모두 거론하면서 원고지 500여 매를 쓴 것인데 결론은 한국고전문학이 무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뻔한 주장을 새로 밝히는 것처럼 쓴 것이어서 제대로 된 논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 뒤 대학원에서 서사무가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석사논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서사무가에 대해서는 장주근 선생이 개괄적 언급을 했을 뿐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본격적인 논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사무가 자료를 개괄하면서 판소리나 고소설과의 관계를 논해본 것인데 이러한 관심이 나의 학문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서사무가는 무속신화로서 신의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를 근간구조로 하는 영웅소설과 관련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유충렬전을 시작으로 군담소설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서사무가는 서사시로서 이야기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판소리와 같은 구비서사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기가 쉬웠어요. 또한 무가에는 재담이나 육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담이나 소화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화로 시작하여 소화로 끝을 맺은 셈인데, 근엄하게 학문을 시작하여 웃음으로 막음을 했다고 할까요.

심우장: 선생님 연구 업적 목록을 보니까 저서가 40여 권, 논문이 100여 편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가장 애착이 가는 논문이나 사연이 깊은 연구 업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서대석: 논문은 연구자의 창의적 주장이 생명인데 지금까지 학문적 주장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된

‘서사무가 제석본풀이 연구’는 무속신화와 건국신화가 같은 연원을 가진다는 것을 특정유형을 대상으로 논증한 것인데 아직까지 이를 부정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군담소설의 출현시기에 대한 논의도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중국소설 설인귀전의 영향, 고소설 작품들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애착이 가는 연구입니다. 판소리 기원과 형성에 대한 논의, 서사무가와 판소리를 대상으로 검증한 구비서사시 작시론, 고소설 작품이나 설화 유형에 대한 구조분석과 해석에 관한 논문들도 나름대로 애착이 갑니다. 그밖에 만주족 구비문학과 한국 구비문학을 비교한 연구는 좀 거친 감이 있으나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학문관에 대하여

심우장: 선생님에 대한 네이버의 인물정보를 보면 탈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학들 사이에서는 무척 엄격 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엄격한 학문관을 갖고 계신다, 혹은 논문 쓰기의 표본을 보여주신다는 후학들의 선생님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위논문 심사장에서 보여주신 선생님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던 경험들을 다들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대석: 사실 논문 심사하는 것도 단순하지는 않아요. 대학원 과정 중에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강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대부분 자신의 학위 논문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논문 심사하는 법을 배우게 마련입니다. 나의 석사 논문과 박사논문은 모두 백영 선생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심사를 받으면서 그 날카로움에 많이 감탄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혹 내가 논문 심사를 하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백영 선생께 배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학술 논문이 어떤 글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은 자기생각을 주관적으로 나타내는 글이 아니고 주장을 세우더라도 객관적 설득력을 가지도록 증거를 대면서 따지고 밝히는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발견한 진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논문의 생명은 독창성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논문을 쓰면서 ‘논문도 제2의 창작이다’라고 하여 논문문장이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학술논문이라도 문학연구논문은 문장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잘 써야 된다는 것인데 이를 잘못 알고 문장치레만 하면 논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늘어놓거나 이곳저곳의 글들을 짜깁기하여 그럴듯하게 늘어놓고 논문을 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논문심사를 할 때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가 학문적 문제로 성립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실증이나 논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 논문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고 학문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요. 대체로 학문적 문제는 연구 대상의 기원이나 형성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에 여러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가치평가도 적용하는 이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쓴 논문은 사실 객관적 지식을 전달한 해설로서 진정한 연구논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논문은 자료를 섭렵하는 과정에서 학자적 통찰로 발견한 원리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현상적 특징을 지적하는 데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 것인가를 탐구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

심우장: 지금까지 좋은 말씀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생이나 이제 막 학문의 길에 접어든 대학원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학문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지적 욕구가 강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해봐야 학문적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자신부터 성찰해보고 학자적 기질에 맞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의 학문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느낀 점은 취향에 맞는 전공을 잘 선택하여 즐겁게 학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는 생각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한다면 교수가 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된다고 해도 행복한 삶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 하나만을 위해 매진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술을 잘 먹으려면 좋은 안주를 적절히 곁들여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술만 먹어대는 사람은 술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자를 평가할 때는 우선적으로 학문적 성취를 보게 되지만 꼭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적인 면과 더불어 인간적인 면을 반드시 평가하게 됩니다. 학문적 주장은 언젠가는 뒤집힐 수 있는데 인간은 끝까지 남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문학은 인간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학자이기 이전에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마치며

학자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무엇을 하셨을 거냐고 여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이나 장사는 절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선생님은 화가 나시면 그 즉시 불호령을 내리신다. 숨기시는 법이 없으시다. 이 때문에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선생님의 제자라면 꼭 한 번은 눈물 나도록 선생님의 사랑

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선생님의 제자 사랑은 정평이 나 있다. 선생님은 이를 두고 항상 스승인 성산 선생께 배운 내리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선생님이야말로 참 인간적인 학자이자 스승이시다.

취기가 올라왔다. 술에 취한 건지 선생님의 말씀에 취한 건지.